

2015 5.31 삼위일체 대축일

제 1 독서 : 신 명 기 4,32-34.39-40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제 2 독서 : 로 마 8,14-17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복 음 : 마 태 오 28,16-2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TV 방송에 정동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중에 기억나는 것이 “네가 무언지 한번 물어 보아라 !”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한테? 먼저 어머니한테,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는 친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 입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제자들이, 엄마도 자식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고, 모범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쏘크라테스를 잘 아시지요? **“너 자신을 알아라!”** 아직도 이 본당에서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 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냅니다. 주일 강론을 위해서 늘 여러 강론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대부분의 강론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어려운 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때에 창세기 1 장 26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시자고 표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것이 아담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도 당신들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어 이브를 창조 하십니다. 그때에 아담이 이브를 보고 찬미가를 부르지요 .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 하실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

“이들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2 장 24 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부부는 한마음과 한몸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무의식중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 일체에 대하여서도 어느정도 이해하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세분의 위격이 하나로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 저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것이,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여 혼동이 되지만, 성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모른다는 것 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살아 보면, 삼위 일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것 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부부의 관계에서 당신의 일치 이해 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 철학을 보면, 형이상학에서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은 하나다! 그 하나에서 우리 모두의 몸들이 창조 되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에서 우리 모두가 나왔고, 우리는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으로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뜻을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라는 것을! 왜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삶의 생활패턴입니다. 2 독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시지요.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과 싸울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웁니까? 내 주장을 내 세우기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나를 먼저 내 세우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상대를 먼저 중요시한다면 싸움일이 없어요. 제가 강론을 이 성당에서 거의 만 12 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강산처럼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주장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내 생각이 더 옳기때문에. 하느님 생각보다, 그분의 영보다 내 주장이 더 크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려운 것 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나오셔서 십여년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한국이 진짜 강산이 변한 것을. 그런데 그현상이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다른이 들이 봤을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곧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뒤에가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그와 함께 친구가 되고싶어,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이 미사 중에,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내 이웃이 나를 친구로 삼고, 벗으로 삼고, 함께 하고자하는 사람인가? 한번 마음을 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세분이 하나로 된 신비의 가르침을 우리 삶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1 독서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32-34.39-4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33(32),4-5.6 과 9.18-19.20 과 22(◎ 12 나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굽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4-17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